

(자조금제도)

CHECK OFF SYSTEM은 축산인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자조금제도(cheek off system)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양축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언제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하였기에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었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자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많은 양축가들이 자조금만 실시되면 우리 업계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값이 떨어지면 즉시 수매비축하고 이 돈으로 유통구조도 개선하여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일은 사람이 하고 유능한 사람을 구해서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업계의견을 들어 본다.

참석자

지미 미니아드- (Jimmy D. Minyard) 전 미농무성 국제협력국장

장 민기-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육계)

황 석규- 대한양계협회 이사(채란)

정 창각- 전국양계인대회장

구 본영- 전국계우회연합회장

최 성복- 전국육계농가안정협의회장

임 옹택- 농민대표(농업경제전문)

강 희구-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송 상정- 계란가격 및 유통구조 전문가

황 인옥- 대한양계협회 전무

전 동용- 대한양돈협회장

이 명복- 양돈협회 경기지회장

정 화진- 양돈협회 부회장(춘천)

성 정표- 울주양돈지회장

김 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

허 신행-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문 기한- 축협중앙회 조사부 차장

박 영인-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회장

민 병렬- " " 전무

사회- 한백용- 양돈협회 전무

민주화 시대에는 정부와 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농민이 주도하는 축산업이 되어야 한다.

“

미국의 자조금제도도 문제가 있었지만 뚜렷한 기본목표가 있어 성공했다.

”



지미미니아드 씨



장 민 기 부회장

장기적 안목에서 시행해야

미니아드→미국에서 자조금제도도 처음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다음 세가지에 뚜렷한 기본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연구와 소비홍보에만 사용
2. 생산자조직의 강화와 전담기구의 구성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졌고 대내 홍보교육으로 생산자 유대강화

민주화시대에 자조금제도는 시기 적절한 제도이다.

학계 정부 대환영

3. 장기적 안목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비 지원으로 학계에서 업계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학계와 연구계가 산학협동이 원만히 이루어졌고 정부도 정부가 못하는 것을 업계 스스로 해결하므로써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자조금의 성격 올바르게 이해해야

박영인- 모든 분야가 민주화되어 가는 마당에서 자조금제도가말로 시기에 적절한 제도입니다.

민주화시대에는 정부와 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농민이 주도하는 축산업이어야 합니다. 농업은 결사가 어려워 발전을 못한다는 이론도 있는데 자조금제도는 농민이 힘을 합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제도

를 실시하는데는 다음 몇가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진할 만한 지도자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첫째, 업계 정부 입법부의 자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농민이 뭉쳐서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면 잘못입니다.

둘째,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자조금을 극히 적은 액수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각종 기금과 단체의 통폐합에 관한 것과

넷째, 현 축산진흥기금에서 일부를 자조금으로 출연하여 축협이 관장하면 간단하다는 생각도 있는 모양인데 이는 자조금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가장 큰 문제는 축산업계에 자조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축산업자를 이해시켜 이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 모일때만 자조금제도를 실시하자고 한후 농장으로 돌아가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형 자조금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농업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축협이 관리자 되는 것 반대

이명복- 과거 축산진흥기금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엉뚱하게 사용되



황 석 규 이 사



정 창 각 회 장



구 본 영 회 장

어 양축가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조금제도에 대하여 회의적이다가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연구용역을 준것은 만시지탄은 있지만 다행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정화진- 이제 관주도의 생각은 관리들부터 없어야 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간주도로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우선 자조금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월2회 정도의 정기적 모임을 갖는 것을 제안합니다.

축산진흥기금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양축가들 에게 불신감을 갖게 했다.

한국형 제도를 정착시켜야

구본영- 일본은 미국식 자조금제도가 아니고 난기안정기금 제도를 운영하여 비축도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와 현실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를 배워 한국형 자조금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격안정은 정부가 해야

박영인- 가격안정은 이상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축해서 가격안정되면 생산량이 증가하여 값이 하락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정부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자조금으로 정부가 수매비축 하도록 공무원을 교육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안정이란 것이 늘 가격

이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가격안정이기 때문에 수매비축 수출보조에 사용하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전제하에 일을 하여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성우- 가격안정에 사용하기만 하면 좋은데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은 가격안정에도 사용해야

정창각- 계란의 경우에 백만 내지 2백만개만 수매해도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7~8억만 가지면 가격안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란은 생선과 같아서 연휴에 장사가 안되면 체화되기 시작해 3개월 정도가 약세로 지속됩니다. 여름철은 계란상인이 차(車)가지고 놀러가 장사안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천만개정도 비축처리하면 가능합니다. 어렵다는 전제하에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축종별로 특성살려 시행해야

축종별로 형편이 다 다르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 추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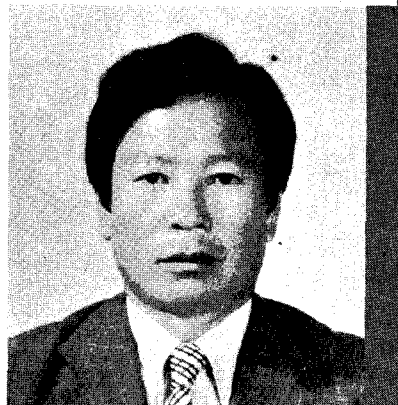
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검토하고 사용처를 못박지 않아야 됩니다.

정부가 할 일까지 하면 부담커

민병열- 수매비축이나 가격안정 등은 정부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최 성 복 회 장



임 용 택 회 장

“
축종별로 형편과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

니다.

정부가 해야할 역할까지 양축가가 떠맡아서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양축가는 세금 내고 또한 이러한 일까지 하려면 막대한 자조금을 내서 2중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할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하면 호응이 적음을 감안해야 한다.

너무 욕심내면 호응 안해

김남용- 처음부터 크게하면 호응을 안하기 때문에 사용처를 제한해야 합니다.

정부가 안하니 우리라도 해야

강희구- 소나 돼지는 도축장과 도매시장을 거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되지만 계란이나 닭고기는 유통체계가 미비하고 전근대적이라 문제입니다.

정부가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에 아무리 얘기해도 우이독경이니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이제는 해야합니다.

축종별로 특성을 살려서 자조금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국 축산인들의 동의서 받아

성정표- 우선 자조금제도에 대한

양축가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울주에서는 자조금제도를 실시하지는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지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축산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 야

허신행- 미니아드씨와 오랜시간 대화해보니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축산물 수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해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조금제도 자체는 좋은데 양축가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 낙농의 경우에 우유의 계획생산이 필요하다고 소위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계획생산보다는 집유선 일원화가 더 시급하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권했더니 정부나 업계에서 낙농인의 여론이라며 장관결재를 받아 계획생산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온 낙농인이 찬성했다는 것이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온 낙농인의 반대로 백지화되었습니다. 생산자가 반대하는 것을 생산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오판한 경험이었습니디. 양돈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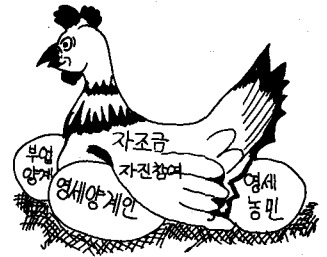
강 희 구 조합장



송 상 정 사장

에도 생산을 규제해야 한다고 연판장을 받고 불길같이 일어나 의원 입법으로 허가제 등록제로 만들고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리가 농장을 다니며 돼지 두수를 헤아리고 농민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쏟아져 나왔습니디. 자조금제도의 긍정적인 문제는 접어두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느냐가 고민입니다.

아직도 대다수 양축가는 규모가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을 받아 내겠다

가난한 양축가에게 적은 돈이라고는 하지만 받아 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이다.

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내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양축가에게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번 농정대토론회에서도 농민들이 수세 영농자금도축세 등 돈을 안내겠다는 것입니다. 20년간 공업만 육성하고 농업은 푸대접했기 때문에 농가부채가 생긴 것이고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 자조금제도 시행은 전 축산인들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요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

정부가 할일을 안하고 가난한 농민에게 돈내라고 하느냐

민주화시대에 법으로 규제하면 정부의 개입이 되고 농민들은 정부

우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축산인이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낄때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

가 할일 다 했느냐? 고 물을 것이고 정부가 할일은 안하고 가난한 나보고 돈내라고 하느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또한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농민한테서 돈을 받아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하느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하면서 생산자가 축산물 소비홍보하는 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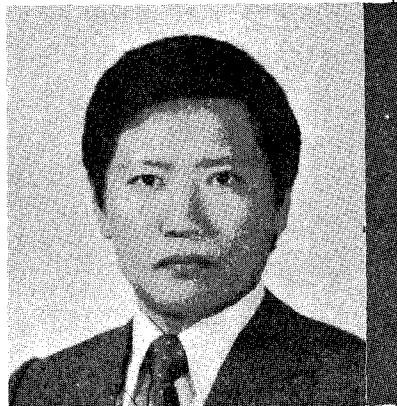
지금 농민은 수입개방 가격불안이 축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홍보는 그 다음입니다.

우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발적으로 전축산인이 인식이 되면 그때 입법조치를 해야됩니다.

자조금제도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형편에 문제도 안되는데 이 때문에 안 먹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홍보해



전 동 용 회 장



허 신 행 박 사

야 합니다.

다만 농민들의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문제가 없지만 많은 영세 양축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수입개방 가격불안이 더 큰 문제

축종별 접근방법에는 동의합니다. 문기환-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나오면 일주일 후 일본에서 복사판이 나오는데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EC에서 자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미니아드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업체나 정부 입법부의 자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협동조합 마케팅보드가 자조금역할 대행하는 나라도 많아

미니아드- 농축산물의 유통체제가 미국과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농협·축협을 통해 대부분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란은 대부분이 협동조합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소비홍보를 하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도

마케팅보드를 통해 판매되므로 이곳에서 자조금 성격의 역할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브로일러는 각 계열

법을 만들기 전에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주체회사가 소비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조금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의 자조금제도에 대한 입법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부와 의회가 협조해서 법안을 초안하여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이지만 의회는 농무성에 의견조회를 하게 되고 농무성은 입법과정에서부터 관여하였으므로 적극 협조합니다.

의회에서 법 통과 후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건되 1년 후 서류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농민이 중간에서 그만두자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만두게 됩니다.

예를들면 실시후 2-4년 후에 농



문 기 한 차장



박 영 인 회장

민이 투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투표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위해 쓰여진다는 공감대 형성해야

박영인- 앞으로 자조금제도는 농민과 대화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교육이 필요하다 농민이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위해 쓰여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 일정규모 이상만 돈을 받도록 규모를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적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입법은 무임승차를 없애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돈을 내고 쓴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입법은 무임승차자를 없애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동용- 오랜시간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양지]

제 자신을 바쳐 일하기로 했거든 다시 그일에 의심을 두지 말라, 의심에 거리끼면 이미 버린 쇠근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많아진다. 무엇을 베풀었거든 그 깊음을 재촉하지 말라. 그 깊음을 재촉하면 앞에 베푼 바 그 마음도 아울러 잘못이 된다.

- 홍지성 · 채근담 -